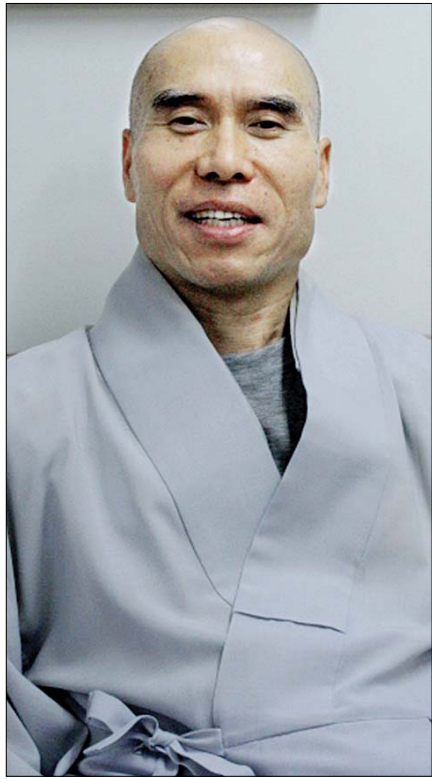


작은 손길이 행복 만들어

대오 스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작은 선행을 가볍게 하지 마세요. 어려운 이를 돕는 작은 손길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추석을 맞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대오 스님은 불자들이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해 도움을 내주길 당부했다. 대오 스님은 “민족 명절인 추석에 불자들이 가정에 화목이 가득하길 바란다”며 “하지만 한 해의 수확물을 나누는 풍요로운 이때에도 우리 주변에는 배고픔과 외로움 등으로 힘들어 하는 많은 이들이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연기적 존재라고 설한다. 우리는 상호 연관된 인연법 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인도해 함께 행복할 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주변 사람과 나누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을 힘들게 들고가는 어르신들을 돕고,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밝게 웃는 마음씨가 바로 나눔의 시작입니다.”

이날 대오 스님은 ‘작은 선이라 가벼이 여기지 말라. 한 방울의 물이 비록 작아도 모이고 모여서 큰 그릇을 채우나니 이 세상의 큰 행복도 작은 선이 쌓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는 <법구경>의 구절을 예로 들며 작은 실천을 강조했다.

스님은 “작은 힘이라도 그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작아서 어떻게’라는 생각을 버리고 단 몇 백원, 천원이라도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부하고, 나누는 삶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대오 스님은 그동안 조계종 100여 복지법인과 800여 산하 기관을 총괄하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상임이사를 맡아 복지 각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왔다.

스님은 복지활동을 수행과 포교와 전법과 뗄 수 없는 불교 그 자체라고 평가했다. 스님은 “나눔은 배움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사실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그동안 진행된 불교계의 복지사업에 대해 “불자들의 인식 속에는 불교가 현대적 사회복지의 후발주자여서 사회복지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불교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뿌리이자 근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불교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위보, 동서대비원, 해민국 등을 통해 구휼과 의료구제사업을 실시했고 비록 현대

적 사회복지 출발은 다소 늦었다고 하나 모범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고 평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지난 6월 창립 15주년을 맞아 만행 캠페인을 선포하고 본격적인 자비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을 발원한 바 있다. 만행 캠페인은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만행 △국내·외 빈곤 결식아동을 위한 만행 △저소득층노년 꿈을 찾아주기 위한 만행 △소외계층 난치병 완화를 위한 만행 △다문화가족 정착을 위한 만행 △호스피스 활동지원을 위한 만행 △국내외 긴급재난구호를 위한 만행 △불교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만행 등 크게 8가지 사업으로 진행된다. 현재 만행 캠페인에는 한화호텔&리조트에서 현금 2000만원, 성인가요 케이블 방송 아이넷TV에서 1억 5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으며, 익명의 불자가 1억 5000만원 상당의 사후 기부를 약속하고 500여 불자들이 후원회원으로 동참하는 등 활발한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만행 캠페인에 대해 대오 스님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스님은 “사회에서 불자들이 기부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다고 평가하는데 일반적으로 무주상보시를 해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라며 “불자들을 대상으로 불교적 정서와 가치를 기반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행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자비 실천과 나눔문화 활성화를 통해 불교 위상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끝으로 “얼마 전 미국의 빌게이츠를 비롯한 세계적인 부자들이 전 재산의 50%를 사후에 기부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우리 불자님들도 나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도록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창문 밖 들녘은 황금빛 유혹에 못 이겨 길나선 허접한 허수아비의 움직임 마냥 부산하다. 몇 차례 닥친 태풍으로 인한 고향의 부모님들의 시름에도 어스레 가을, 올해도 추석은 찾아왔다. 올 추석 기운 햇살처럼 풍요롭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를 돕보는 것은 어떨까. 나눔으로 마음까지 따뜻한 사람들을 만나보자.



불자들 선행 알려 동참 유도

정은숙

진각복지재단 사무국장

정은숙 진각복지재단 사무국장은 어르신들에게 믿음직스럽고 푸근한 첫째 딸과 같은 존재다. 노인복지관에서 시작해 노인 요양시설 근무로 잔뼈가 굵은 20년 경력의 그녀는 현재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진각종의 복지사업을 이끌고 있다.

“어려서 장애가 있어 장애우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에 다녔어요. 당시 많은 장애우들 중에 제가 제일 신체적으로 양호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돕게 되며 ‘나도 도움만 받는 것이 아닌 남을 도울 수 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구나!’ 느꼈어요.”

정 사무국장은 20년의 활동 중 스스로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을 볼 때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 사무국장은 “불자님들 중에도 누군가를 돕고자 할 때 정자 보시의 손길을 어느 곳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망설이는 분들이 많다”며 “서로 돕는 기부 문화가 활성화 되려면 단순한 보시문화에서 후원 대상자는 물론 후원하는 사람까지 행복한 기부가 될 수 있도록 참신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사무국장은 모금 및 후원 모집의 전문화를 과제로 꼽았다. 정 사무국장은 “후원 모집 등은 단순한 재정적 뒷받침을 얻기 위한 행사가 아닌 선행을 알리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며 “모금 교육 등을 실시해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필요에서 진각복지재단은 올해 특별한 만남을 시작했다. 한국보다 고령화 등이 일찍 시작된 일본의 복지법인과 교류를 시작한 것이다. 진각복지재단이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만월회’는 매월 만원씩 어려운 이를 후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3658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등 불교계에서

성공적인 후원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긴급복지서비스 ‘진각복지119’는 지금까지 긴급하고 위기상황에 놓인 134명의 가족 및 개인들에게 4710만 원의 금액을 지원하는 등 풀뿌리 복지의 전령으로 자리했다. 진각복지재단은 이러한 프로그램 등을 해외 복지법인과 교류를 통해 더욱 다각화하고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정 사무국장은 “현재 일본타카타사업협회와 협약을 맺었으며 명조회 외 2곳 법인 과도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또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 진각사회복지연구소를 개소할 예정”이라며 “고령화에 맞춘 성공사례 등 인력양성과 지역교류의 노후우를 배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가 기대하는 사회는 어떤 것일까. 정 사무국장은 “지역과 함께하며 더불어 잘 사는 즐거운 세상”이라고 말했다. 그런 세상이 율까. 밝게 웃는 정 사무국장의 모습에서 희망이 비쳤다.

노덕현 기자



순수한 마음으로 베푸세요

무원 스님

천태복지재단 상임이사



“동체대비(同體大悲)하라는 부처님 말씀처럼 편견을 없애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나가는 것이 세계 속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다문화입니다.”

명락사 주지 무원 스님(천태종 총무부장)을 두고 사람들은 흔히 ‘다문화의 선구자’라고 말한다. 스님은 2009년 10월 한국에서 오고 갈데없는 다문화여성들을 위한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명락빌리지를 개원했다. 명락빌리지는 현재 10여 명의 다문화여성들이 등지를 틀고 있다.

무원 스님은 이런 다문화가정 이외에도 지역민, 새터민, 노인 복지까지 따뜻한 손길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비의 사상’을 실천하고 있다.

스님의 이런 나눔의 실천은 이미 30년 동안 이어져 왔다. 스님은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예식(禮式)이 가장 기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을 다 갖추려면 좀 귀찮거나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도(道)와 예(禮)가 반드시 갖춰져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조금 바쁠수록 이를 기본으로 삼아 생활해야만 우리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진정 소중하게 생각하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무원 스님은 “특히 지금처럼 추석인 대명절에는 이러한 도와 예를 더욱 잘 지켜 우리 주변을 둘러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추석은 부모님에 대한 예를 올리고, 효를 실천하는 날이다. 자신의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 지내는 이주자들에게 추석은 낯선 타국의 문화이면서도 고향을 그리게 만드는 날이다. 무원 스님은 추석에 가장 기억 남는 일로, 인천 황룡사 주지로 있을 당시를 떠올렸다.

“황룡사에 있을 당시, 추석이 되면 노동 이주자들이 음식을 장만해서 절에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러곤 자신들이 만든 음식을 공양하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예를 올리는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 그 후로 이런 것이 진정한 나라의 문화 속에 녹아드는 것이라 생각해 다문화인들에게 우리의 명절문화를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원 스님이 다문화가정을 위한 쉼터를 설립해 운영한지도 1년 여가 다 됐다. 스님은 “예전에는 도와주고 싶어도 뿌연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게 됐다”며 “가장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어 기

분이 좋다”고 말했다.

“천태지자 대사께서도 의식주를 해결해야 도를 잘 닦을 수가 있다”고 말했다.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문화인들을 진정으로 배려하고 그들과 서로 상생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로의 문화를 공유해 나갈 수 있는 불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무원 스님은 “추석 등 명절을 맞아 여러 단체에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행사가 많이 진행되지만 너무 일회성이고, 이벤트성이 짙은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님은 “작아도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위를 돌아보고 베풀어야 한다”며 “남의 시선을 끌기위한 도움은 진정으로 그들이 원하는 도움이 아니다. 실속있는 프로그램으로 그들은 도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스님은 “앞으로 다문화가정은 점차 늘어날 것이다. 후대에 국가지도자나 상위층에 다문화인이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때 자국민들은 어떻게 이런 사안을 받아들일지 생각해볼 문제”라며 다문화가정에 대한 좀 더 진지한 자세와 인식을 요구했다.

이어 스님은 “앞으로 불교계에서도 다문화 대안학교를 설립해,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한 문화 교육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며 “나중에 이 아이들이 자라 교육의 고마움을 느끼면, 자연스레 불교의 고마움을 느끼게 되고, 부처님을 꿈꾸게 된다. 불교가 앞으로 해나갈 진정한 포교는 바로 이런 것”이라고 밝혔다.

글=이은정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왕초보의 불교 공부 첫 걸음

왕초보, 경전박사 되다

우리가 알아야 할 불교상식 150가지!

바라춤과 승무, 극락과 지옥, 전생과 내생, 죽음과 열반, 윤달과 불교, 사십구재, 천도재, 예수재, 기도 백팔번뇌, 음 마니 반배 홀, 우담바라, 오계와 십계 등

석지현 · 윤창화 · 일지 지음 / 46면 양장 / 352쪽 / 29,500원

왕초보, 불교박사 되다

중요한 경전 50여 가지를 엄선하여 알기 쉽게 해설한 경전안내서!

계환스님 지음 / 46면 양장 / 304쪽 / 29,500원

왕초보, 천수경박사 되다

불교의 기초에서 깨달음까지! 쉽고 다양한 현대적 해설!

한국불교의 모습을 담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경전이 천수경이다. 그 천수경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왕초보를 위한 천수경 해설서!

생법스님 지음 / 46면 양장 / 328쪽 / 29,500원

왕초보, 수행박사 되다

참선 수행, 위빠사나 수행, 절 수행, 생활 수행, 염불 수행, 주력 수행, 간경 수행 등 여러 가지 수행 방법과 목적, 실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고평석 지음 / 46면 양장 / 320쪽 / 29,500원

왕초보, 법화경박사 되다

부처님 말씀을 알기 쉽게 비유를 통해 중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법화경간의 숨어 있는 매력.

정승석 지음 / 46면 양장 / 278쪽 / 29,500원

왕초보, 불교교리박사 되다

불교의 핵심교리와 지식을 항목별로 명확하고 간명하게 정리한 초보자들을 위한 안내서.

고평석 지음 / 46면 양장 / 320쪽 / 29,500원

왕초보, 禪박사 되다

화두란 무엇인가? 화두는 어떻게 참구하는가? 화두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하여 누구든지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책입니다.

윤창화 지음 / 46면 양장 / 424쪽 / 21,000원